

지역 소식



부안군산림조합, 농가교육 '호응'

부안군산림조합은 임산물 소득 창출을 위해서 조경수 재배 농가교육을 비롯하여 표고버섯 재배교육 등을 하여 임업농가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이들 위해 산림조합은 지난 10일 산림조합중앙회 전북지역본부 특화담당과장을 비롯한 고사리재배전문가 등을 초빙, 고사리재배농가 3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다.

오세준 조합장은 앞으로 각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해서 산림조합원들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안=이옥수기자

부안 주산파출소, 농번기 빈집털이 범죄예방 홍보

부안경찰서 주산파출소는 관내 마을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작동상태 점검과 함께 농번기 철 예상 되는 빈집털이 절도 등 범죄예방 홍보에 나섰다.

이들 위해 주산파출소는 농번기 철 한정된 경찰력을 대신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고 방범용 CCTV를 점검, 노후되거나 고장난 CCTV는 관리자와 협의 교체 또는 수리에 들어갔다.

특히 주산파출소는 마을주민에게 방범용 CCTV 설치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확대 설치하는 한편 빈집털이 절도 등 각종 범죄에 미리 대처하는 예방법에 대해 주민들 상대로 교양 및 홍보를 펼치고 있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 상동지구대, 치매노인 구조

정읍경찰서 상동지구대가 아간에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치매노인을 구조하여 지역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상동지구대는 지난 8일 오후 7시경 치매가 있고 품이 불편한 남편이 집을 나가 밤 늦게까지 귀가하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긴급경위와 최승혁 순경은 신속히 출동하여 상황을 파악한 후 관내 CCTV를 분석, 요구조자가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 하고 신속히 119구조대와 지역 자율방범대에 수색을 협조하여 어두운 산속을 면밀하게 수색, 자칫 실족 등이 우려되는 요구조자를 발견하여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인계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도시재생사업 일환

창안 300거리 사업 본격화

쌍화차거리·새암길 등 생활환경 개선·주민 역량 강화사업 추진

정읍시가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꽃과 함께 걷는 창안 300거리(이하 창안 300거리)'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창안 300거리' 사업은 작년도 국토교통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32억원을 지원 받아 추진된다.

시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확보한 국비에 시비 32억원을 더한 총 64억원을 들여 쇠퇴해진 원도상인 쌍화차거리와 새암길 우암태평로 등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역량 강화사업 추진에 나선다.

환경개선사업으로는 쌍화차 특화거리의 경관 개선과 쌍화차 체험시설 조성 등과 함께 주변 연계 골목 경관 개선 및 문화공간 조성을 통한 새암로의 소풍거리 조성 그리고 가로환경 정비와 청년 창업지대 설치 등 창업의 거리 조성사업은 우암태평로 일대에 추진된다.

시는 또 주민역량 강화 일환으로 주민리더와 코디네이터 양성교육, 도시재생 창안대학과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 시민참여 플랫폼(platform) 구축, 시민 소통 활성화를 위한 시민전문가 포럼 양성 등의 추진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공모사업 선정은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한 정읍시 도시재생



대학을 통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원도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상권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지구 노력을 기울여 온 노력의 결실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정철모 교수)를 설립했다"며 "앞으로 이를 기반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와 의견을 모아 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원도심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쌍화차거리상인협의회의(이공식 회장)와 새암길상인연맹회(이재만 회장), 우암태평회(김상수회장)도 주민 주도형 시범사업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의 일환으로 쌍화차거리상인협의회는 상가 앞 화단 가꾸기에 힘쓰고 모은 한편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아 꽃길 가꾸기와 거리정소, 한인행사를 진행해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시와 건물주와 세입자협의회(쌍화차거리, 새암로)는 상권 활성화의 부작용인 임대료 상승에 따른 원주민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난해와 올해 초 임대료 안정화를 위한 상생 협약식을 가져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가축분뇨처리 사업 추진

22억3000만원 투입... 축산업 환경개선 나서

고창군이 축산업에 대한 획기적인 환경개선을 위해 악취저감시설 등 가축분뇨처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은 올해 국도비 13억 등 총 사업비 22억3000여만 원을 투입해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악취를 줄여 지속가능한 축산업 환경 개선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은 우선 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해 고창부안축협 흥덕경제사업장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한다.

이를 통해 악취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전용 미생물을 생산·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축산농가에 공급하면 악취를 80%이상 저감할 것으로 보이며, 유용미생물을 사료에 첨가 급여하면서 사료 효율도 개선하고 대사성 질병 사전 예방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란계 2개 농장을 대상으로 가축분뇨의 발효를 촉진해 친환경 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인 계분고속발효기(2억3000만원)를 지원해 계분처리도 고충을 겪고 있는 산란계 농가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한다. 이와 함께 악취발생으로 인한 고충 민원이 예상되는 양돈농장에 미생물 환경처리제(1억원)를 구입·공급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민원을 사전 방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가축분뇨예비화(5개소 1억1000만원) ▲정화계보수지원(1개소 1억2800만원) ▲환경친화적가축분뇨처리(2개소 2000만원) ▲액비저장조밀예비시설 지원(8개소 4억1200만원) 사업 등을 지원하여 축산농장에

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시켜 주변 주민들과의 융화를 도모하고 더불어 상상할 수 있는 쾌적한 축산 환경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되고 있는 악취저감 미생물 생산시설사업 등은 전북도 축산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 사업이 확보됐으며 악취저감 및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로 자원화 촉진 등을 위한 전북도의 확고한 의지가 돋보이는 사업이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와 악취의 저감노력으로 축산업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축산인의 자정 노력에 힘입어 매년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정한 축산환경조성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서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보건소,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 '호응'

고창군 보건소가 경로당 어르신들 대상으로 만성 퇴행성관절염 예방과 유산소 및 근력강화를 위한 경로당별 근력강화용품 배부하여 건강관리에 특화된 역할을 하고 있다.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지역 내 노인들이 만성질환으로 인한 고통호수와 의료비 지출 증가 추세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매년 60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직접 순회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추진하면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다.

보건소는 유산소와 근력강화를 위한

건강 체조교실을 운영하면서 신체활동이 부족한 어르신들의 체력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다.

아울러 금연, 절주, 영양, 치매조기검진, 암 예방 교육, 심뇌혈관질환관리, 노년기 구강관리 등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초부터 관리하고, 월 1회 건강상담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초고령화시대에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생활습관 개선과 건강위험군을 감소시켜 드릴 수 있도록 건강가이드 역할을 더 열심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소방서, "119구급차 비응급환자 이용 자제 해야"

정읍소방서(서장 김일선)는 119구급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비응급환자 이용 자제 당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119구급차는 일단 출동하면 거의 모든 환자들을 이송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하나 비응급환자의 이송이 지속된다면 정말 급한 환자의 이송이 늦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와 이송을 위해 법령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첫째, 119구급차는 구급대상자가 비응급환자인 경우 「119구조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에 의거하여 이송을 거절 할 수 있다.

둘째, 119구급대원은 「119구조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에 의거하여 이송병원을 결정하며, 치료에 적합한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원칙으로 한다.

셋째, 응급상황 허위 신고 후 구급차로 이송되어 해당 의료기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119구조규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하여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일선 서장은 "응급상황이 아닌 자신의 편의를 위해 구급차를 불렀을 경우 정말로 위급한 환자의 이송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달라"고 전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청소년 교과서 클래식 음악회 개최

CD 윈드 앙상블이 주관하고 정읍시가 주최하는 정읍시 청소년 교과서 클래식 음악회가 14일 저녁 7시 30분 정읍시체육회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Ensemble PLUS 팀을 초청,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클래식 음악과 해설을 현장에서 함께 들어볼 수 있는 연주회로, 1시간 30여분여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클래식 음악은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필수적인 음악테도 불구하고 클래식에 대한 이해 부족과 공연 환경의 미비함으로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만큼 이번 음악회가 청소년들의 클래식 음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정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several bottles of wine, a cartoon bear mascot, and various gift sets. Text include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The bottom right corner has contact information: TEL: 063-694-8990, www.gangsanwine.com.